<觀 我 臺>

어 린 이 의 讀 書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붙여——

푸른 5月이 싱그럽게 온 山河에 그 나긋한 치맛자락을 펼치고 있다. 5月은 확실히 계절의 여왕이며, 이 달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마련한 것은 무척 象徵的이다.

××날, △△주간, ○○달, □□의 해 같은 많은 행사가 있지만 이렇게 내어 건 내용들은 그 날이나 그 해에 국한하여 생각할 성질의 것은 하나도 없다. 일년 365일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와 어버이의 바람직한 관계는 모든 것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가정에 있어서나 한 국가에 있어서의 어린이와 부모(成人)들의 관계는 사회학이나 교육학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그 사회를 결정짓는 요소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5月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圖書館人이 생각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李五德 校長은 農村어린이들의 童詩를 모아 펴냄으로써 지금 농촌어린이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雄辯으로 告發하였다.

高度의 經濟成長, 눈부신 發展의 뒤안길에서 都市를 그리워하는 아이들과 文明의 公害에 시달려 찌드는 어린이가 共存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 내일의 主人公인 어린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도와 줄 것인가? 營養失調보다 더 무서운 文化失調의 어린이들에게 圖書館人이 하여야할 일은 무엇인가? 圖書館은 國家와 文化發展의 礎石이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國家와 文化發展의 궁극적 목적인 人間幸福의 첫걸음으로서의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가?

僻村 어린이에게 册보내기 운동에 앞장서 왔는가? 또 참여하고 있는가? 어느 學父母의 솔직한 고충——어린이에게 무슨 책을 어떻게 읽혀야 옳을지 배운 바도 없고, 알 길도 없다——을 해결할 연구를 한 일이 있는가? 어린이의 성장단계에 맞는 우수도서목록이라도 마련하려고 생각이나 해 왔는가?

쏟아져 나오는 兒童圖書에 대한 書評이라도 한 번쯤 시도해 보았는가? 國民讀書運動이나 讀書人口 底邊擴大論을 펴면서 어찌하여 어린이의 讀書에 관한 구체적 연구가 없는가?

圖書館 發展論의 方向을 어린이로 돌리자. 圖書館人은 讀書하는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먼저 수행해야할 것이다. 어린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에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일이 도서관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 푸른 5月의 新綠이 바로 어린이의 氣像이 되도록 한 줄기 시원한 단비를 내리자. 그들의 풍부한 想像力이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넓은 터전을 마련해 주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마음의 신선한 샘 줄기를 탁 터주자. 이 것이 무엇보다 앞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崔昌均〉